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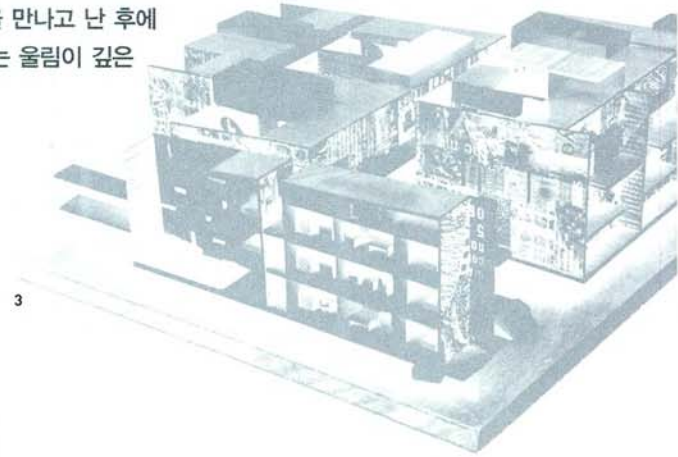
김영준 도시건축 대표 김영준

# 건축을 빌려, 삶을 말하다

RECCION



건축은 예술이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건축가 김영준을 만나고 난 후에 든 생각이다. 4시간여의 인터뷰 내내 그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삶'이라는 울림이 깊은 단어였다. 에디터 유소라 사진 최지영 자료 제공 김영준 도시건축



3



1 자하재 (2005)  
2 지운재 (2005)  
3 파주출판도시 공동주거 계획안 (2000)

사실 지난달에 인터뷰를 받고 싶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출장 중이시거나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때 정말 바빴어요. 파주출판단지를 오스트리아나 암스테르담 등 해외에 소개하는데, 그 책임을 맡고 있어서 해외 출장이 잦았거든요.

**파주출판단지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나요?** 그런 형태의 도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형성되기 힘들죠. 유럽의 경우, 단지란 주택 중심인데 파주출판단지는 주택이 배제된 상업단지잖아요. 그리고 건축가와 출판업계 사람들의 문화적 마인드가 결합해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의 시장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기존의 제도하에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차례의 세미나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젝트에는 해외 건축가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그 건축가들의 잠재적인 가능성만 보고 선정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건축가들이 되었지요. 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이기 그 대단한 건축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헤이리도 파주출판단지와 성격이 비슷한가요?** 헤이리는 예술가들이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한 프로젝트예요. 헤이리의 원래 이름은 서화촌(書畵村)이었어요. 21세기 들어서 도시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자 도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파주출판단지나 헤이리 둘 다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헤이리의 '자하재'에 대해 듣고 싶어요. 그 집은 어찌 보면 고독해 보이기까지 한데요. 헤이리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나 전원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하재는 자연과 인공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느냐에 대해 내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과 자연이 머무는 공간을 명확히 나누기보다 사람이 생활하는 인공적인 공간에 자연 공간을 쪼개 넣어주기로 했어요. 즉 방 하나를 받은 실내로 만들고 받은 실외로 만들어 묶어주는 식이죠. 여기서 실외는 자연이 되는 것이고요. 거실, 식당, 화장실도 모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형이 두 배로 확장되고 집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일반 주택과 구조가 많이 다르네요.** 지금까지는 집을 형태로 바라봤는데 집은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아야 합니다. 삶의 시스템, 즉 사는 방법을 공간 안에 담는 거지요. 자하재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편한데, 자하재는 좁은 공간 하나를 지나야 하죠. 그걸 복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복도를 쓸데없는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복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좁고 긴 방'이 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삶의 패턴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하재는 시스템이 집을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건축물의 특성을 말할 때 '기능'과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능이나 아름다움의 가치는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 기능과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전에는 건축가가 집을 만들 때 기능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만들었어요. 방과 식당, 거실, 심지어 그림을 걸어놓을 장소까지 정해놓고 고정된 틀을 만들었죠. 그러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식구가 늘 수도 있고, 그림이 몇 개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삶의 변화가 생기면 공간도 변할 텐데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건축물에 담겨야 할 것 같아요. 즉 불확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죠. '불확정한 공간'은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최종 형태를 목표로 공간을 만들기보다 중간 형태를 목표로 정하고 거기서 삶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건축에는 '기능'과 '아름다움' 외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지난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 공모에 당선된 당신의 제안서 '이분법 도시(Dichotomous City)'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 것인가요?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도시 역시 최종 형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나 도시의 근본은 집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체계입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흐르는 어떤 시스템이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죠. '이분법 도시'는 도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도시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에요.

이분법 도시란, 기존의 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대신 두 개의 체계를 공존하게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즉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지키고 그 모습 위에 새로 개발한 도시를 덮어씌우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두 체계가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두 개의 체계를 만들었지만 실제 도시의 모습은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도시라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역으로 그 기능을 확정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전 세계 도시의 건축물들이 점점 비슷해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점점 초고층화되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의 도시 모습이 비슷해진다는 것은 명품을 컬렉션하듯 도시에 유명 건축물을 세워 상품화하려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일 거예요. 몇 안

되는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지요. 그러나 명품 건물 하나로 도시의 삶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위해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내가 사는 도시에 한강이 보이는 근사한 아파트가 있지만, 내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해변의 레스토랑과 카페 등을 다 매입해 해변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비록 내 집이 좁아도 집 앞을 나오면 해변 공원을 걸을 수 있으니 삶이 바뀌는 거죠. 더 나아가 도시의 공공장소를 잘게 찢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큰 공원보다는 내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공간을 자꾸 쪼개어 각각의 기능을 나누어주고, 용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불확정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가 도시의 가치를 만드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준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전 세계의 건축물 중 무엇이 제일 좋냐는 질문과 같은 거죠. 도시에 있어 우열의 문제는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좋은 도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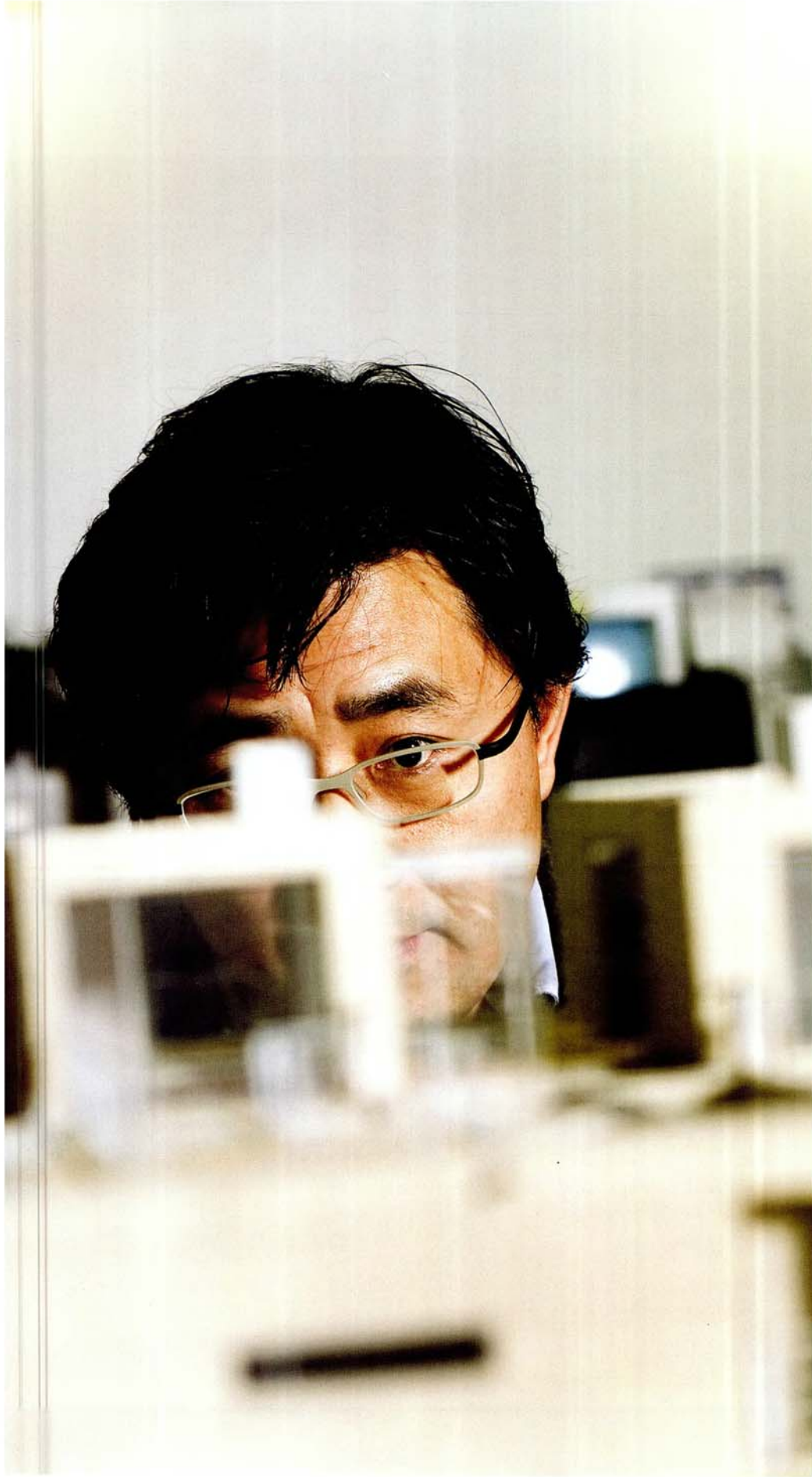
건축가로서, 도시 코디네이터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해외 건축가들과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스페인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이 다른 곳에서의 건축은 내게 다른 과제들을 던져주죠. 그곳의 토질, 날씨, 기후 등에 맞는 '좋은 집'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해외 건축가들과 서울의 문제, 도쿄의 문제, 바르셀로나의 문제 등을 많이 논의할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쌓고 논의를 거친 후 내가 다시 자하재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과연 어떤 집이 나올지 궁금해요.

건축이란 무엇인가 김영준 소장은 '좋은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는 않았다. 아니, 그 정의를 부정하는 듯 보였다. 그보다는 건축의 문제를 찾아내 좋은 건축물로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인터뷰를 마친 후, 그가 건네준 파주출판단지에 참여한 열한 명의 건축가들의 글을 묶은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나는 건축가 승효상의 글에 밑줄을 그었다.

"굳이 건축을 다른 학문의 분류에 넣는다면 인문학에 가깝다. 문학적 상상력과 논리력, 역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사물에 대한 사유의 힘이, 이웃의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 속에 작업해야 하는 건축가에게는 필수불가결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





1 허유재 병원 (2004)

2 하이피 카탈루냐 (2003)

3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공모 당선안 (2005)

